

지역 소식 통

고창군 임대농기계
78대 현장 공개경매

고창군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 28종, 78대를 관내 농업인에게 경매를 통해 우선 매각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매는 오는 13일 오후4시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진행된다. 입찰 방식은 사전 설명회와 구입 희망 물품 확인 후 감정평가금액 이상의 최고가액을 제시한 응찰자에게 낙찰되는 형태다. 참가 자격은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가 고창군으로 되어 있는 농업인에게 주어진다.

경매 당일에는 반드시 신분증(등본)과 공고일 이후 발급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지참해야 참여할 수 있다. 입찰 시간은 13일 오후 16시부터이며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입찰 대수는 1인당 1대로 제한했다. 최종 낙찰자는 개찰 후 5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기간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농기계를 인수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6회 부안읍민의 날
추진위원회 출범

부안읍은 부안읍민 화합의 대표 축제인 '제6회 부안읍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10일 추진위원 49명을 위촉하고 오는 10월 1일 개최 예정인 부안읍민의 날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위원 위촉과 함께 임원 선출을 마무리하고 행사 추진 방향과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추진위원회는 준비를 위해 △기획운영분과 △교통분과 △체험분과 △공연분과 △식음분과 △환경분과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분과는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행사 준비와 운영 전반을 담당하며, 안전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혁신 선도도시 자리매김

‘2026 기관 혁신 상담’ 개최... 고창군 공무원들과 정부혁신 우수사례 공유 등

정읍시가 정부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행정혁신 성과와 경험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수하며 혁신 선도도시로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기관 혁신 상담(멘토링)’을 열고 고창군 공무원들과 정부혁신 우수사례와 추진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상담은 정부혁신 우수기관의 성과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정부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기관표창을 받은 정읍시는 지도기관(멘토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날 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시니어 의사 활용 지역주치의제’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은퇴한 의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고, 보건지소 진료와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 사업이다.

시는 은퇴 의사 확보와 재원 마련 과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은 시행



착오와 개선 사례, 혁신성과 관리 방법 등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도 공유했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행정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시는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과 정부혁신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다른 지자체의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맡으

며 행정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혁신은 한 기관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우수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확산할 때 더 큰 가치를 만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방행정 혁신을 선도하면서 우수사례 확산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고창군, ‘다시 한번 인구 5만 UP’ 한마음

인구 5만 사수 대응 방안 논의

고창군이 10일 오후 ‘인구 5만 지키기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인구 5만명 사수를 위한 대응 방안과 범군민 실천 운동 확산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추진단 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고창군 인구 현황 및 전망 △인구 5만 지키기 추진상황 △기관·단체별 협력방안 △다시 한번 인구 5만 지키기 범군민 참여 확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7월 말 기준 고창군 주민등록인구는 5만6천명이다. 참석자들은 고창읍주소 갖기 운동을 비롯해 전입 지원, 청년 정착, 기업 및 기관 협력,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단체별 역할을 강화하고, 군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인구 5만 지키기 추진단’은 지난해 출범 이후 지역 기관·사회단체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구 감소 대응

을 위한 정책 제언과 범군민 참여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창군은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물류센터와 첨단기업 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덕산지구 공동주택 조성, 터미널 공영주차장 일원에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명사십리 해양치유·레저 클러스터 및 노을대교 연계 관광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정주여건과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높인다... 정읍시, 충주와 협력 본격화

정읍과 충주의 도시재생 지원기관과 주민조직이 사업 종료 후에도 거점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정읍시와 정읍시지역활력센터는 지난 7일 수성동 주민센터 3층 교육장에서 충주시 도시재생 관계기관과 함께 ‘도시재생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과 충북, 경북의 도시재생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정읍시지역활력센터와 충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양 지역의 도시재생 발전과 사업 종료 후 시설의 지속적 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주민조직 지원과 시설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도시재생시설을 주민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정읍지역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3곳인 정심·리본·연지마루와 충주 사이길 마을관리사회적협동

조합도 별도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조합은 운영 경험을 나누고 거점 시설에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을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행사에는 협약 참여기관 외에도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전주시·김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김제시 성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경북 영천 완산뜨락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방상윤부군수는 10일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해 민선9기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상윤 부군수, 부안 군정책심 사업 건의

전북도청 방문·민선9기 현안사업의 원활 추진 지원 요청

부안군 방상윤부군수는 10일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해 민선9기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군정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건의사항은 △부안 지역활성화 재단 설립 △군정 주요 현안사업 특별 조정교부금 지원 △부안군 도시개발사업 추진 △‘부안 변산 마실로드’ 2026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등으로, 지역 활력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도시개발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부안군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건의하며, 주요 관광자원과 도로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관광도로 지정 등 지방도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방상윤 부군수는 “주요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현안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의 가을밤, 박창근의 노래로 채우다

9월 11일 ‘가을밤 콘서트’... 정읍 홍보대사로서 가을밤 추억 선사

정읍의 가을밤이 홍보대사 박창근의 음악으로 물든다. 정읍시는 오는 9월 11일 정읍천변 어린이축구장에서 ‘박창근 가을밤 콘서트’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시민과 함께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나누는 ‘2026 정읍 문화로 대동’의 하나로 마련됐다. 공연은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정읍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박창근이 무대에 올라 특유의 깊이 있는 음악과 감성적인 무대로 시민들에게 초가를 받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는 공연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했다. 오는 13일까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창근 가수 희망곡’ 댓글 행사를 진행해 시민들이 듣고 싶



은 노래를 자유롭게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의 자연

고유생물의 서식지

고창 갯벌

고창갯벌은 곰소만에 넓게 형성되어 있는 갯벌로 세계 최고수준의 저서규조류 생물종을 보인다. 또한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최대 서식지로 유명하다.

고창갯벌은 약 194종의 저서규조류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바지락과 동족이 서식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고창갯벌은 100여 종, 20만 마리의 물새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중 IUCN 적색목록 21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EN등급)인 황새의 국내 최대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 세계 1종 1속만 존재하는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도 하다. 고창갯벌에는 팔갯벌 위에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사질 퇴적체인 쉼니어(Chener)가 관찰된다.

쉼니어는 자갈, 조립질 모래와 조개껍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의 영향을 받아 육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쉼니어는 팔갯벌에 둘러싸여 있으며, 바닷물에 잘 잠기지 않아 철새들의 동지 및 휴식처의 역할을 수행한다.

- 출처: 유네스코 한국의 갯벌 -

전주매일 캠페인